



DT브랜드파워대상



SCU e야기 Vol.14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Cyber World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소셜커머스
SCU투데이 세계적 금융공학 전문가 William T. Ziemba 교수 본교방문
여기 e 사람 신입 교무처장 정영애 교수 · 김임현 동문 · 김태이 동문
Mento & Mentee 백서연(멘토) & 이성옥 · 신현아 · 김승현 · 김진현(멘티)
Special Theme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 상담심리대학원



제6회 하계 해외탐방 호주(시드니) 여행에서 모래썰매를 타고 동심으로 돌아간 학우들

ISSN 2005-2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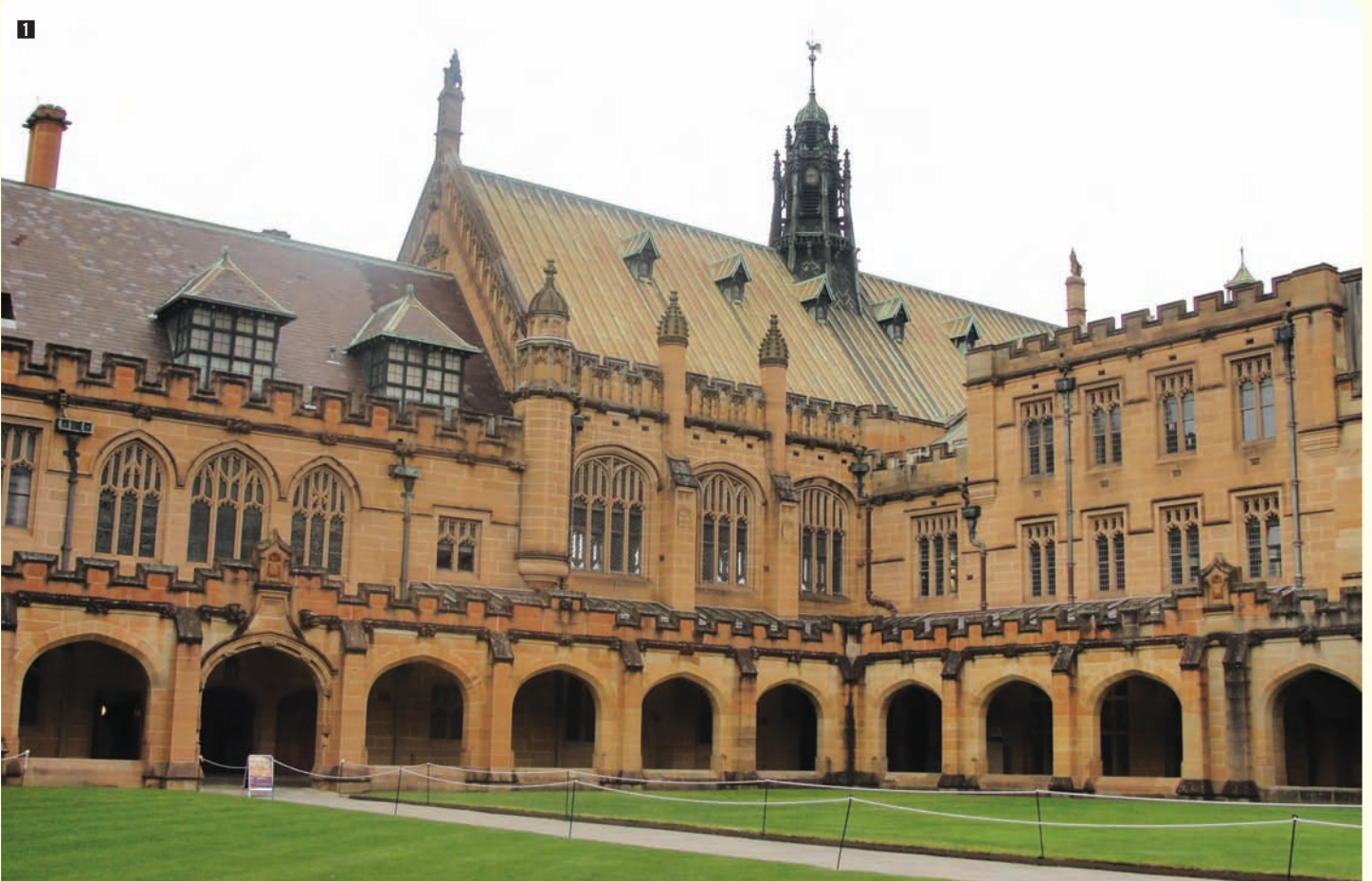
9 772005 204905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1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곧고 장대한 서사인

글로벌 서사인 양성을 위한...제6회 하계 해외 역사문화 탐방

호주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살아 숨 쉬는 배움의 여행 떠나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해외 역사문화 탐방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국제적인 시각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춘,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서사인을 양성하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SCU 인기검색어 순위에 진입할 정도로 재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하계 해외탐방은 호주의 시드니대학과 록스지방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현장을 탐방, 체험·학습함으로써 넓은 견문과 전문적 지식을 쌓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글 | 편집부

누 군가 여행은 '이 생(生)에서 다른 생을 살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를 뜻하는 그리스어 '스콜레(Scole)'가 오늘날 학습을 의미하는 학교(School)나 학자(Scholar)의 어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행과 휴식을 통한 배움 또한 커다란 공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 탐방이라고는 하지만 직장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사인들에게 6일간의 해외여행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고충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행의 소중함을 아는 많은 서사인들이 해외문화 탐방의 문을 두드렸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2명의 재학생이 떠난 6일간의 일정은 시드니대학 탐방과 록스(Rocks)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30일, 무려 열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호주에서 처음 방문한 곳은 시드니대학. 1850년 설립된 시드니대학(The University of Sydney)은 1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호주 최고의 대학이다. 고딕 양식에 샌드스톤(사암)을 사용한 캠퍼스 건물들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깊고 웅장한 느낌이 들었다.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인 만큼 일행 모두 시드니대학 출신 현지 가이드의 영어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방문 당시 겨울방학이라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서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엿볼 수 있었다.

캠퍼스를 둘러보던 투어 참가자들은 학과도 성별도 나이도 달랐지만, '서사인'이라는 인연만으로도 금세 친구가 되었다. 백은희(노인복지학과 2학년) 학우는 "영어로 딱히 뭐라 표현하기 힘들 때는 'Excuse me'를 쓰면 된다. 우리나라 사투리 중 하나인 '거시기'처럼 모든 뜻이 전달된다."며 재미있는 비유로 학우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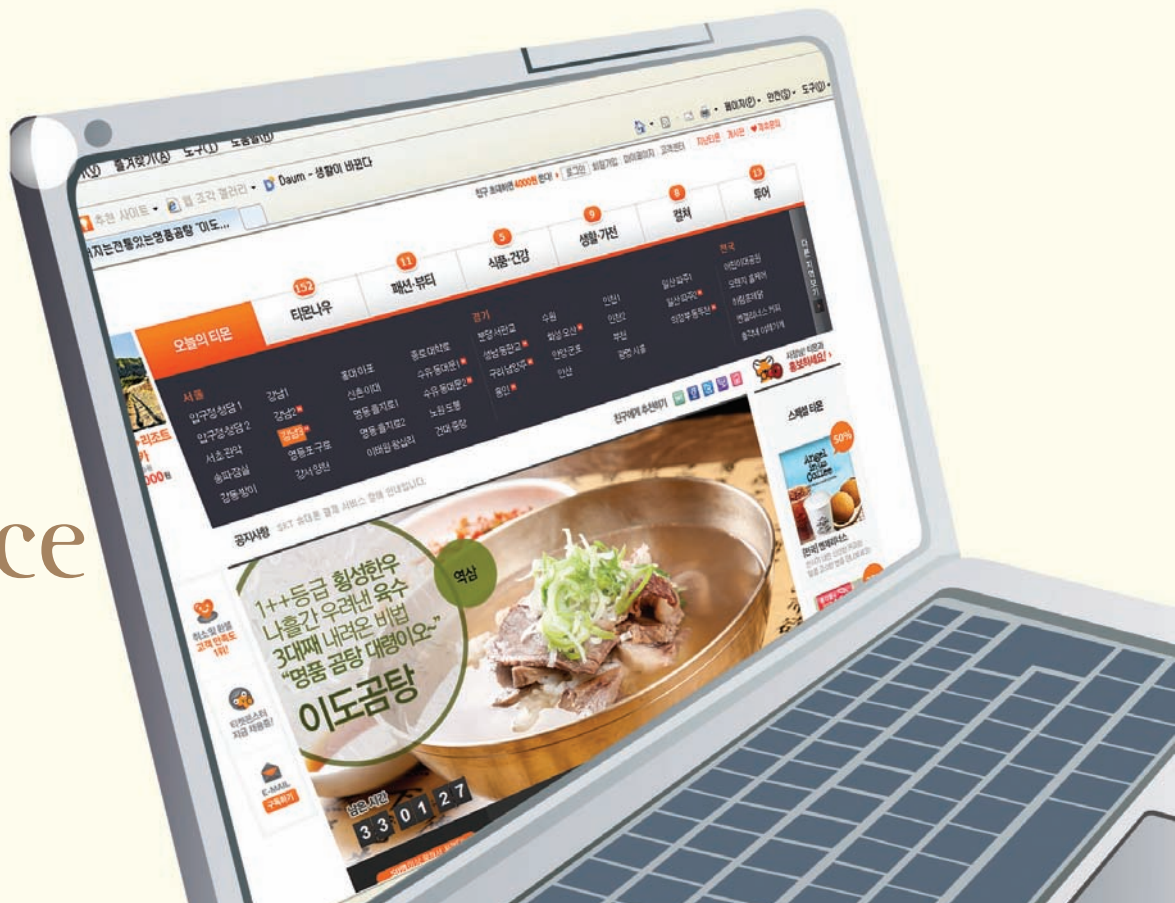
이번 해외탐방 참가자들은 시드니대학 외에도 호주 최대 규모의 파충류 공원인 램타일 공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 하우스 등을 견학했다. 또한, 유럽 정착민들의 최초 거주지로 시드니 최고의 역사 유적지를 접할 수 있는 록스(Rocks)지역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호주의 문화와 역사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4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정순재(상당심리학과 4학년) 학우는 "이번 해외탐방은 손에 만져지지도, 뚜렷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 1 대학탐방으로 진행된 '시드니대학 캠퍼스 투어'를 통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2 제6회 하계 해외탐방은 호주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 3 시드니의 명물 오페라하우스는 전 세계 건축가들이 연구를 거듭할 정도로 건축술이 뛰어나다.
- 4 시드니에 있는 NSW주립미술관은 호주 원주민의 예술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의 작품까지 폭넓은 전시가 이루어진다.
- 5 NSW주립미술관에는 고흐, 모네 등 무료관람이라고 하기에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교과서에서만 본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6 세계 최대 규모의 파충류 공원인 램타일 공원에서 캥거루에게 먹이를 주는 색다른 체험을 했다.

Social Commerce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소셜커머스



마케팅 비용 줄이고 가격 낮춰... 모두가 Win-Win하는 신종마케팅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러닝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이나,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초기부터 전자상거래는 인기 있는 서비스였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될수록 여러 형태의 거래방법이 생겨났는데, 그 중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공동구매였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사람을 모아 보통 50%, 크게는 90%까지 할인받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글 | 편집부

모이면 엄청나게 싸지는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판매자가 물건을 올려놓고 지정된 시간동안 일정수의 사람이 모이면 물건을 싸게 판매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형식의 판매 방법이다.

물건을 대량구매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래조건은 인터넷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어왔다. 그것을 이용해 생겨난 거래방법이 바로 같은 물건을 살 사람들을 모으는 공동구매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을 모으기 쉬워져 공동구매가 활발해졌으며 이베이나 옥션같은 사이트에서는 일정 사람을 모으면 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의 태동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셈이다.

본격적인 소셜커머스가 생기게 된 것은 2008년 그루폰이 탄생하면서 부터다. 그루폰은 그룹(group)과 쿠폰(coupon)을 조합해 만든 이름으로 할인쿠폰 사업을 하던 미국청년이 만든 회사다. 그루폰에서 판매되는 할인 티켓은 보통 50% 정도의 할인을 제공하고, 많으면 90%까지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지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된다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수익이 없더라도 홍보효과가 커 소셜커머

스에 참여하는 회사가 많아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연, 음식점이 주였으나 미용,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심지어 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서비스 쿠폰이 판매되기도 했다.

이러한 소셜커머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SNS 서비스다. 일정수의 사람을 모아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SNS서비스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물건 홍보를 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티켓몬스터, 쿠팡 등의 소셜커머스가 선보이고 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소셜커머스의 그림자

소셜커머스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셜커머스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불만도 커져갔다. 대표적인 것이 식당 서비스다.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은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가가 구매 고객과 차이를 두기 힘들지만 음식은 할인가만큼 양이나 재료를 줄일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식사 할인 쿠폰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부실한 음식과 서비스로 인해 기분이 상해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항의를 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할인 쿠폰을 사용했더니 음식도 서비스도 할인해서 나왔다”는 말까지 할 정도다.

다른 불만으로는 물건을 확보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는 경우다.

일단 사람들을 모아야 할인이 되는 만큼 물건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구매를 진행해 쿠폰을 사고도 지정된 물건을 교환 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받는 경우가 많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가격제품으로 산 사람들도 불만이다. 소셜커머스의 주 제품인 공연 티켓의 경우 정상가로 사면 자리를 지정할 수 있고 환불의 절차도 편하다고 하지만 소셜커머스로 티켓을 구입하면 자리를 지정하지 못할 뿐 정상가격을 주고 산 티켓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공산품의 경우는 인기 있는 물건이 반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소비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도 불만은 있다.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와 홍보효과가 있어 소셜커머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연의 경우 제값을 주고 보는 관객들이 줄면서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에는 구매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국의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5,000억 원, 내년에는 7,000~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루폰이나 리빙쇼셜 등의 외국 기업들도 몰려들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체의 정리와 함께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단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한국의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5,000억 원, 내년에는 7,000~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루폰이나 리빙쇼셜 등의 외국 기업들도 몰려들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체의 정리와 함께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단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소셜커머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SNS 서비스다. 일정수의 사람을 모아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SNS서비스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물건 홍보를 하게 된 것이다.



선진 금융기법과 전략 개발한 최고의 석학 SCU 미래 위해 이러닝의 글로벌화 적극 조언

금융공학은 금융시장에서의 현물 거래와 이에 파생되는 옵션시장의 여러 문제들을 수학과 통계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짐바 교수는 금융공학 분야에서도 자산관리를 모델링하고 수리적으로 예측하는 분야를 전공했다. 그는 이를 통해 연기금과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의 자산부채관리(A&L Management) 기법을 만들고 좀 더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연구하는 한편, 기업 자문을 비롯해 금융공학과 관련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분야에서 분주하게 활약하고 있는 그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했다.

글 | 편집부

세계적 금융공학 전문가 William T. Ziemba 교수



원 리엄 T. 짐바(William T. Ziemba) 교수는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한 석학이다. 금융 모델링 및 확률적 최적화에 대해서 연구한 그는 스탠포드, UCLA, 버클리, MIT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프랭크 러셀, 모건 스탠리, 고든 캐피탈 등에서 자문을 맡는 등 금융분야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다.

금융공학의 선두주자, 짐바 교수

짐바 교수는 금융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헤지펀드사에 대한 운용자문도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지금, 헤지펀드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헤지펀드에 관해 다소 오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자기 자본 투입률이 30%만 되어도 리스크에 민감하게 대처하지만, 레버리지 효과에 의지하여 운용을 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가 약해지는 측면이 있죠. 결국 문제의 발단은 글로벌매크로 헤지펀드인 셈입니다.”

글로벌매크로는 프로그램 매매나 시스템트레이딩 기법 중 하나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각국 금리와 통화 가치가 적정한 수준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집중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헤지펀드인 것. 때문에 헤지펀드에 관한 평가도 극과 극이다.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투자 자본으로서 금융 산업의 총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위기의 진원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각국의 경제상황, 특히 방향성을 분석하여 주식이나 외환시장에 선물이나 옵션 등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1997년에 아시

Ziembra 교수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명예교수로 금융모델링과 스톡스틱 최적화를 토대로 다년간 금융시장연구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를 주재한 바 있다. 또한 세계최고의 금융연구와 모델링을 통해 프랑크르셀사의 자산 1조 달러의 운용자문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두 개의 헤지펀드그룹에 대한 자문과 역외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괄목할만한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윌리엄 T. 짐바 교수. 그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따스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함께 둘러본 캠퍼스의 느낌이 '우아하다'고 덧붙혔다.



아를 휩쓴 외환위기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짐바 교수가 말하는 세계경제 위기 향후 전망

그는 최근 미국 채무위기와 유럽의 재정적자로 인해 국제사회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경제 위기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고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유럽의 경우, 유로존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위기해결의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는데다가 여전히 통일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너무 약삭빨라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PIGS(Portugal, Italy, Greece, Spain)가 과다 채무로 인한 재정적자로 인해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네 나라의 재정적자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 부족에 있지만 이태리의 경우, 거기에도 고위공직자의 느슨한 윤리적 측면이 화를 자초한 감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시정부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많은 지출을 한데다가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바람에 위기를 가중시켰다.

“개인적으로 워싱턴 정가의 우익인사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채무한도를 조정하는 협상과정에서 시한이 닳쳐서 합의에 이르는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미국의 신용하락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e-Learning의 가능성과 조언

이처럼 너른 세계의 현상을 직시하고 있는 짐바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닝의 미래는 어떨까. 그는 미국 피닉스 대학을 언급하며, 이러닝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동의를 했다.

“권구순 교수님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한국에서 최우수 사이버대학으로 선정되고, 인지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방문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오프라인 대학들도 이러닝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짐바 교수는 따로 정규 온라인강의를 한 적은 없지만 MIT에서 강의했던 자료와 슬라이드가 MIT 무료 오픈강의 사이트에 게재된 적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영국 Wilmott 社の 웹사이트에 수리학 석사과정 과목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등 온라인상에서 그의 강의를 접할 루트가 활짝 열려 있다. 아울러 이번 한국방문에서 했던 강의를 역시 조만간 동영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제가 이러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영어로 된 콘텐츠를 늘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층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까지 범위가 넓혀지지 않을까요?”

그는 한국 내 사이버대학의 미래를 위한 조언으로 글로벌화를 언급한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의 특강과 과목강의까지 맡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나라 이러닝의 글로벌화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정영애 교무처장(노인복지학과 교수)은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을 되새기며 중심을 지키려 한다.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원칙을 지키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는 까닭이다.

한국여성학회 회장 & 신임 교무처장 정영애 교수

큰 도약 위한 밑거름 다지기
무한애정으로 구축하는 SCU의 내일

한국여성학회장을 맡고 있는 노인복지학과와 정영애 교수가 지난 4월 15일, 신입교무처장으로 취임했다. 2006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며 교무처장을 겸직했던 정 교수는 다시금 교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다. 숲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고이 키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법. 때문에 정영애 교무처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큰 숲이 될 수 있도록 소소한 일도 더욱 섬세하게 살피보려 한다.

글 | 편집부

“교 무처장직은 두 번째인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학이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교무처에서는 학생들이 우수하고 다양한 교과목과 콘텐츠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학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학사제도 운영의 미비한 부분이나 교수님들께서 연구와 교육을 하시는 데 불편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이어가는 SCU 사랑

신임 교무처장으로 취임한 후, 어느덧 4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 교수의 마음은 여전히 ‘초심’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분주하게 일과를 보내고 있지만, 서울사이버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바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이런저런 사안들을 챙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개교 후 10여 년 동안 학생 수가 만 명이 넘고 대학원이 설립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올봄에는 미국에서 열린 국제대회 ‘IMS Learning Impact Award 2011’에서 우리 학교의 ‘SCU Learning WAVE’가 국내 최초로 은상을 수상해 우리 학교 콘텐츠와 수업운영시스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했지요. 그런 점에서 저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심껏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 교수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여성정책담당자, 한국여성학회 학회장 등 사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거쳐 오며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간 참여해왔던 숱한 일들 중에서도,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관련된 성과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교육과학기술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던 일입니다. 평가 결과 못지 않게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평가에 대비해서 노력했던 일도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이버교육의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다면 교무처장으로서, 정 교수가 꿈꾸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

교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스스로 제안하고 개척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 교수는 자신이 앞장서기보다 학교발전을 위한 큰 줄기 아래서 의미 있는 결실들을 키워내는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한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교육의 선구자인 우리 학교가 그동안 이루어 온 성과나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점에 대해 궁지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사이버교육의 모델을 이루어나가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국내 1호 여성학 박사학위 취득자이자, 한국여성학회 학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여성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정 교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을 향한 애정 어린 조언도 잊지 않는다. 자신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삶의 지평을 넓히는 인식을 갖게 될 때가 가장 보람된다고 말하는 그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소명도 늘 품고 있다. 20년 가까이 오프라인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서 느끼는 감흥은 다소 다르다. 인생경험을 충분히 쌓은 학생들이 대다수인지라, 자신의 강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실생활의 경험이 없는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덕분에 학생들로부터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학창생활을 통해 지식을 더 알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 대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 책임감이 있으면 졸업 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마스한 조언까지 잊지 않는 정영애 교수. 그녀의 섬김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내일이 사뭇 기대된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회장상 수상
김임현 동문(복지시설경영학과 졸업)

누군가 나로 인해 행복한 건 참 벅찬 일

‘오롯이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가능할까?’란 질문에 ‘흠으로 돌아가면 빼만 남는 것이 우리네 인생. 베푸는 일만이 삶의 가치를 드높여 준다!’고 담백하게 대답하는 김임현(복지시설경영학과 2011년 졸업) 동문. 금년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한 그녀는 봉사동아리 ‘행복한 동행’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글 | 편집부



대 학 재학 중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친 졸업 예정자에게 수여하는 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회장상에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 김임현 동문이 그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8월에 졸업한 김임현 동문은 ‘이제 시작’이라며 남다른 포부를 내비쳤다. 그녀의 꿈은 다름 아닌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

“미혼모들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도우며 사는 게 목표입니다. 자립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서 몇날 며칠 잠이 오지 않을 정도거든요.”

김 동문이 이토록 여성복지에 관심이 많은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녀 역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랜 세월 홀로 자식을 키워야 했던 까닭이다.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여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 없이 자식을 키워야 하는 여자들은 더욱 그렇죠.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기존의 전공을 살려 피부미용 사업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 편입을 추천한 것은 바로 하나뿐인 딸이었다. 학업에 대한 엄마의 뜨거운 열망을 모르지 않았는지 주저하는 김임현 동문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어느덧 엄마보다 훨씬 더 엄마 같아졌더라고요. 딸만 생각하면 정말 든든하죠. 제 유일한 지원군이니까. 뒤늦게 공부하러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컴퓨터를 다루는 솜씨가 영 서툴러, 처음에는 애를 좀 먹었어요.”

하지만 김임현 동문의 학교생활은 누구보다 모범적이었다. 각종 교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업에까지 충실해 언제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그녀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면, 고단한 것도 기쁘다”며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관한 애착을 드러냈다. 특히, 봉사동아리 ‘행복한 동행’은 오늘의 그녀를 있게 한 근간이었다.

“노인요양원에 실습을 나가고 봉사를 펼치는 동안, 제가 앞으로 무얼 하면서 살아야 할지 진로가 한결 명확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한다는 것 만큼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일이 또 있을까요?”

그녀는 복지사업을 공부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도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부디 명예나 수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세상에 따스한 빛을 건넨다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사명 의식을 강조하였다. 김임현 동문은 현재, 본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유 명 미용 강사로 남부럽지 않은 행보를 걷고 있던 김태이 학우에게 시련이 불어 닥친 것은 5년 전쯤이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단 한 달여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던 것. 급작스럽다는 표현으로도 다 설명이 안 될 만큼 비현실적인 일이었기에, 그의 고통과 절망은 한층 더 처절하게만 느껴졌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장님이 되리라는 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죠. 실제로 식음을 전폐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니까요.”

김태이 학우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믿고 어울렸던 지인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소리 없이 떠나갔으니, 그 상처가 오죽 깊고 쓰렸겠는가. 하지만 김태이 학우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시각장애 판정 두 달 만에 스스로 시설에 들어가 재활 교육을 받고 새 인생을 준비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죽음병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물론, 제 자신한테도. 또 제가 타고난 성격이 상당히 낙천적이거든요 (웃음).”

김태이 학우가 올 초,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3학년의 문을 두드린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 무엇보다 심리적 치유가 절실한 이들에게 따스하고 든든한 위로가 되고 싶어서라는데,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벼랑 끝에 내몰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제가 워낙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심리상담 공부를 해보아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광고를 듣게 됐고, 군경상담학이라는 분야도 알게 되었죠.”

어린 시절부터 군대나 경찰조직에 관심이 많았던 김태이 학우에게 군경상담학은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었다.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라 하니,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제 예상이 적중했죠. 이제 고작 한 학기 들었지만,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신세대 장병의 이해’와 ‘조직과 인간관계’가 기억에 남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무릎을 치면서 들었다니까요 (웃음). 못해도 열 번은 다시 들었던 것 같아요.”

김태이 동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도 하루 빨리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개설되었으면 한이라며 작은 소망을 덧붙이기도 했다.

가슴으로 보는 세상은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훨씬 드넓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김태이 동문. 군경상담가로 활약하고 있을 그의 머지않은 미래가 얼핏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휴(休)맘스 홈케어’ 원장

김태이 학우 (군경상담학과 3학년)

눈보다 가슴으로 보는 세상이 더 아름답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세상을 보는 경로가 꼭 눈(目)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김태이(군경상담학과 3년) 학우. 그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생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김태이 학우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미지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글 | 편집부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헌신해준 정명호 양에게 최고 학과로 자리매김하게 한 큰 헌신과 희생에 고마움 느껴

글 | 이완형 교수(국제무역물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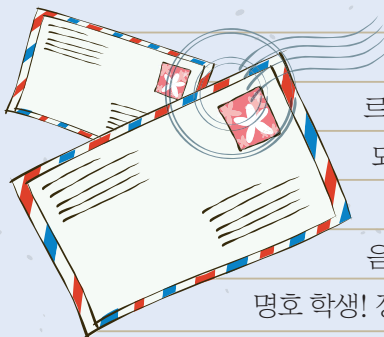


명호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를 나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2005년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끝나고 학과에서 마련한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참석한 신입입생 모두가 신입생환영회를 위해 저녁식사 자리로 이동하는 때에,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호 학생이었습니다. 전화 내용을 기억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 다. 다들 어디로 이동했냐는 것입니다. 잠깐 비운사이에 일행들을 놓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명호 학생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 있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명호 학생의 전화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첫 이미지가 당당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목소리였고, 만나보니 초롱초롱한 눈에서 자신감이 엿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과에 일꾼이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1학년으로 입학한 명호 학생은 직장 다니며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졸업하기까지 4년 내내 학과에서 임원으로 봉사했습니다. 말이 임원이지만 학과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고 술선수범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학과를 돌보고 사랑했다는 표현이 더욱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자신을 알아달라는 공명심이나 왜 이렇냐는 등의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면 안타까워하고 마음 졸이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이 포용하고 감내했던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래서 재학 중에 한 번도 내 마음을 명호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이 지면을 빌어 말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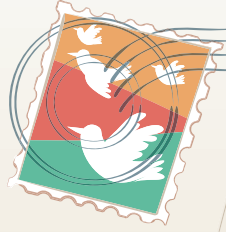
“명호 학생, 우리학과에 입학해주어서 정말 고맙네. 그리고 모든 걸 이겨내고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해 주어서 정말 고맙네. 또한 입학해서 졸업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선생으로서의 ‘나’를 있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네. 어쩌면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존재이유를 밝혀주고 삶의 이유가 되는지도 모르겠네. 자네의 헌신과 희생이 이제는 우리학과가 국내 최고의 학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나는 확신하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았느냐가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자네는 그 분이 되어 내게 사랑과 감동을 주었고, 진솔한 마음과 성품은 그대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네.

명호 학생! 정말 고마웠어. 감사해. 그리고 사랑한다. 자네가 앞으로 이루어 나갈 자신의 삶과 자네가 이룬 소중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네. 남편과 아기하고 함께 봅시다. 내가 저녁 살께.”



학생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이완형 교수님께 칭찬으로 고래를 춤추게 한 나의 영원한 프라이드

글 | 정명호(국제무역물류학과 2009년 졸업)



이완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게 정말 가을
이 왔나봐요. 건강히 잘 계시지요?

제가 졸업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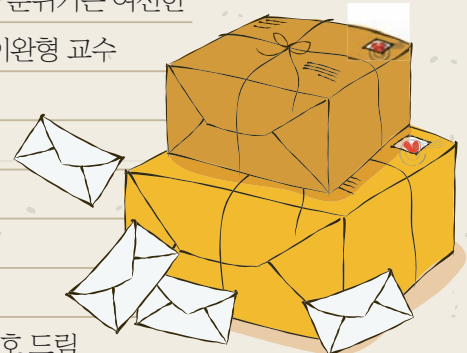
교수님, 기억나세요? 저 입학하던 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식사하
러 가는데 제가 일행을 놓쳐서 나눠주셨던 OT자료를 보고 교수님께
전화 드리고 찾아갔었잖아요. 그 후 신입생이 들어올 때마다 교수님
께선 학교생활 하는데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며 저를 칭찬
해 주셨지요. 그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저는 학교생활 내내 매우 적
극적인 봉사를 하게 되었고요. 하하하하.



지금은 결혼하여 육아에 전념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직장과 학업이라는 이중
생활로 바쁜 날을 보냈었지요. 시험기간에는 꼬박 밤을 새고 출근하기도 했고요. 특히 교수님 과목을
시험보는 날은 정말정말 힘들었어요. 왜냐고요? 교수님의 수업은 흥미롭지만 시험지만 보면 지끈지
끈 문제를 이해하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우들 사이에선 교수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했었
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니 더욱 기
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험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인 것처럼요. 비록 시험점수는 아쉽지만요. ^^

인원수는 적지만 타 학과에서 부러워 할 만큼 의기 화합하는 우리 국제무역물류학과 분위기는 여전한
거죠? 존중만을 바라는 일방적인 사람이 아닌, 학생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이완형 교수
님이 계시는 한 우리 학과는 영원할 거예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 하게 되면 함께 손 붙잡고 찾아뵙게요. 항상 몸 건강하세요.
영원한 프라이드 국제무역물류학과 파이팅!!



2011년 8월 26일 제자 정명호 드림



MENTO & Mentee

부동산학과

백서연(멘토) & 이성옥 · 신현아 · 김승현 · 김진현(멘티)

운명처럼 맺은 인연 우리에게는 시작만 있을 뿐 끝은 없다!

서로를 알게 된 지 불과 반년. 서울사이버대학교 멘토링 제도의 특성상 멤버들의 관계는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상태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게 뭐 중요한가요?' 하는 반응이다. 부동산학과에서 최고의 호흡을 자랑한다는 백서연 멘토와 그 멘티들, 바로 '희망조' 이다.

글 | 편집부

구 수한 냄새가 뭉근히 피어오르는 찐 옥수수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은 백서연 멘토와 멘티 4인방. 이 같은 자리가 꽤나 익숙한 듯 하나같이 편안한 모습들이다. 우연찮게도 사무실과 집이 전부 지척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희망조'는 시종 일관 '유쾌! 상쾌! 통쾌!' 한 이야기들로 웃음꽃을 피웠다.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희망

백서연 다들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도 얼굴 봤는데, 좀 새삼스러운 인사인가요?(웃음)

김승현 그나저나 정말 우리 '희망조' 해체하는 거예요?

백서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웃음). 멘토링 규칙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멘토의 임무가 끝났지만, 우리가 어디 보통 사이인가요?

신현아 멘토님 안 계시면 우린 어떡하라고..... 김진현 멘티님 또 학교 그만두신다고 엄포 놓으실지 몰라요(웃음).

김진현 나 진짜 자신 없어요. 다음 학기에도 멘토 역할 해 줘요. 사실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2학기 휴학을 여러 번 고민했거든요. 그럴 적마다 '공부는 마음먹었을 때 해야 한다'며 잡아준 장본인이 우리 백서연 멘토님이었어요.

이성옥 맞아요. 저도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땐 모든 것이 낯설어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뒤늦은 나이에 도전한 터라 공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러운데, 온라인 체제를 혼자서 습득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학교 측에서 백서연 멘토님을 추천해 주었고, 덕분에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김승현 장담컨대 멘토링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저 역시 학교생활이 순탄치 못했을 거예요. 멘티들이 행여나 좋은 정보를 놓치게 될까봐 우려돼 늘 게시판에 글 올리시고, 그도 모자라 확인하라고 일일이 전화며 문자까지 넣어주셨거든요.

김진현 내가 그 정성에 감동해서 2학기도 등록한 거잖아요(웃음).

백서연 쑥스럽네요. 전 오히려 멘티님들께 감사한 걸요. 학교에서야 제가 멘토이고 또 선배이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멘토인 동시에 멘티인 셈이죠.

김진현 동감이에요. 모름지기 멘토와 멘티는 상하구조가 아니라 동반형이어야 한다고 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었어요. 소통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OK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희망조'는 아주 이상적인



백서연(멘토)



이성옥(멘티)



신현아(멘티)



김승현(멘티)



김진현(멘티)

형태 아니겠어요?(웃음)

일동 맞아요, 맞아! 하하하.

계속 지금처럼만, 우리 사이 오래오래

신현아 우리 '희망조' 구성원들과 첫 대면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모든 게 생소하고 어색해서 딱 집에 가고만 싶었는데, 멘토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며 크게 반색하셨죠.

김승현 그 특유의 미소와 더불어! 맞죠?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하고 든든해지는..... 한번은 엠티를 갔는데, 글썽 밤새도록 제게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지 뭐예요. 편입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던지라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돼 있었고, 본인도 상당히 피곤했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저희 멘티들부터 챙겨주셨던 거죠.

이성옥 그래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김진현 얘기 들으니, 가지 못했던 게 더 후회되네요.

김승현 확실히 멘토님이 권하시는 활동들에 적극 참여하고 나면, 학교와 학과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더욱 깊이 지킨 하더라고요.

이성옥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공유하는 삶을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멘토님은. 그렇죠?(웃음) 멘티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나누어 주려고 부지런히 애쓰시는 모습 보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김진현 멘토링 제도를 통해 저희 모두가 '베룩의 미학'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2학년 땐, 멘토로 나서고 싶어요.

김승현 저도요! 백서연 멘토님만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체험한 게 있으니 아무래도 중간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웃음).

백서연 너무 칭찬들만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하. 저 진짜... 멘토로서 괜찮았던 거죠?(웃음) 한시름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비록 이번 학기로 멘토의 소임은

끝이 났지만, 변한 건 없어요. 저는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뭐든지 팔 걷고 발 벗고 도울 테니까, 주저 말고 연락하세요!

이성옥 '단합과 친목' 하면 또 우리 '희망조'잖아! 걱정 마세요(웃음).

백서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업 포기하지 마시고 각자 목표하신 바,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요. 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나의 삶 변화시킨 빛나는 ‘SCU의 힘’



전문대를 졸업하고 인터넷으로 편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알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온라인수업에 대한 이해력과 습득태도 또한 엉망이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고 배움에 있어 믿음이 생겨난 2년째 되던 해,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학사 졸업장을 받고, 대학원 진학이라는 기쁨도 함께 얻게 되었다. 이제부터 작은 시도로 시작된 나의 학습의 변화와 사이버 공간과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나타났는지 부끄럽지만 소개 할까 한다.

글 | 황현우(법무행정학과 2011년 졸업)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과목에 이해가 우선



법 무행정학과를 선택한 계기는 경찰서나 법원을 자주 가는 일에 종사하면서 낯선 법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학기 강의를 들은 후에는 단지 용어들만 알아가기에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기타 등등 자격증에 대해 목표를 두지는 않았다. 이유인즉, 내가 몸담고 하고 있는 일은 방송일이라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도 했고, 자격증을 위한 강의를 듣게 되면 웬지 주입식 교육에 따른 단순 암기 형식으로 나아갈까 걱정도 되었다.

일단 첫 수강에서는 교안을 기초로 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은 판례 및 법 문헌을 보고 학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1주차부터 14주차에 이르기까지 시간압박과 심리적 압박에 대한 불안감은 없지 않았지만 퇴근 후, 이 시간만큼은 온라인수업에 충실하자는 마음을 먹고 시간을 계획하였다.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학습하다 보니 이해가 더 쉽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매일같이 강의를 2시간 정도 듣도록 계획을 했을 때는 월, 화, 수 정도면 1주차 강의 2과목 정도는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2과목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 퇴근 후에는 무조건 들을 수 있도록 컴퓨터 전원을 켜었다. 온라인수업이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질 때 즈음, 관련 서적을 옆에 두고 학습을 한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물론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책을 읽게 되면 구체적인 스토리는 몰라도 핵심적인 줄거리를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낯선 법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시작한 것이다. 주말에는 이해하기 힘든 과목에 대해서 복습을 하게 되었다. 물론 단순히 책에 밑줄을 그으며 외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해 정도가 기준이었다. 법률적 용어들을 정리하고 판례에 따른 법의 변화된 형태를 쉽게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듣고 보고 정리하는 학습습관을 들인 것이다.

온라인 과정에 대한
학교인프라 큰 도움



이렇게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맞추어 나가다 보니 그에 따른 고충도 있었다. 이 판단이 맞는지 혹은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워 틀린 것은 아닌지 난해할 때가 가끔 있었다. 온라인이라는 자체가 네트워크형성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게시판과 학생회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네트워크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게 되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법무행정학에 대한 좋은 교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서점에 가면 다양하고 세분화된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묶어서 발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은 내 나름대로의 학습방법과 아쉬운 점을 적어 놓았는데,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하며 부족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울 것이 많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위취득만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에 만족을 얻을 수 있었고, 학교에 대해 자부심마저 쌓였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 특강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99퍼센트 절망 이기는 1% 희망의 힘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에, 지난 여름 폭우로 몸살을 앓는 우리 이웃들을 보며 대자연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인간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자연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 설산을 오르는 엄홍길 대장이 그 대표주자.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신의 영역 히말라야에서 절망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대장’이라는 호칭이 당연하고 친근한 산악인 엄홍길이 서사대 신·편입생에게 들려주는 희망학개론을 통해 그 비결을 알아보았다.

글 | 편집부



지 난 7월 21일 오후 7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세계 최초 8천 미터 16좌 완등’이라는 수식어에 빛나는 산악인 엄홍길이다. 평생을 산악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가까운 도봉산은 모산, 어머니 같은 산이다. 부모님은 세 살배기인 그를 데리고 도봉산 중턱에 집을 짓고 등산객을 상대로 음식을 팔았다. 그렇게 40여 년을 자연 속에서, 산속에서 살았던 엄홍길에게 산은 생활의 일부, 삶의 터전이 되었다.



실패 속에서 희망을 보는 긍정의 힘

중학생 시절 우연히 배운 클라이밍을 계기로 산악인의 길에 들어선 엄홍길이 소위 말하는 ‘큰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85년의 일이었다. 해발 8천 미터를 ‘설악산 네 개 합친 높이’ 정도로 생각했던 그가 첫 등반에서 배운 단어는 ‘실패’였다. 그러나 엄홍길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발아래 두었던 산악인이 되기까지 그는 22년간 38번을 도전하며 성공보다는 더 많은 실패를 맞았다.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후배 6명과 세르파 4명을 잃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로체샤르는 3번 실패 끝에 정상에 올랐다. 안나푸르나는 네 번째 도전 때 정상을 앞두고 추락해 오른쪽 발목이 180도 돌아가는 끔찍한 사고까지 겪었다. 당시 의사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려면 가도 좋다.”고 만류했지만,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넘나들며 5번째 도전 끝에 기어이 정상에 올랐다.

엄홍길에게 도전은 매 순간이 죽음을 무릅쓰는 도전이었다. 원정을 갈 때마다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육체적 고통과 동료를 잃은 정신적 고뇌가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끝나지 않

세계 최초 히말라야의 8,000M에 달하는 16개 봉우리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7월 21일 본교를 찾아, 지난 22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해외 원정 등반을 해오면서 겪었던 실패와 좌절,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도전정신에 대해 아주 특별한 희망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이기자 누구도 오르지 못한 곳에 발 디딜 수 있다는 기쁨이 찾아왔다. 그는 인생이라는 산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 전해주었다.

이제는 인생의 산에 도전하고 싶다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도전 정신에 대해 알려주었던 그는 “이제는 도전의 산에서 내려와 인생의 산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얼마 전부터 엄홍길은 등반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산악인과 세르파들의 유족을 돕고 그를 받아준 산(山)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휴면재단을 설립, 유가족을 도우며 नेपाल 오지에 학교를 세우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도전 정신’에 대해 알려 주었던 산악인 엄홍길이 ‘이제 우리는 마음을 나누어야 할 때, 희망을 말해야 할 때’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강은 재학생들에게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고 당부한 ‘대장’ 엄홍길의 삶 자체가 큰 감동으로 다가온 시간이었다.

온라인 석사 교육의 중심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 탐방

사이버대학원의 리더 SCU,
세계무대에서 가치를 인정받다!

올해 첫 신입생(총 121명)을 선발한 서울사이버대학원은 '차별화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온라인 교육의 선두에 서 있다. 다양한 e-Learning 콘텐츠들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원은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문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글 | 편집부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서비스정책의
진보를 꿈꾸다

이 라인 석사과정으로는 최초' 라는 타이틀을 안고 눈부시게 등장한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은,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최대 목표를 둔다. 또한, 지식 함양과 더불어 실상에 의거한 직업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요컨대 복지현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방안을 탐구,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과과정 또한 매우 특별하다. 개인의 수준



휴먼서비스대학원은 미래 사회의 안정 및 발전을 이룩하고자 '실천적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 중에 있다.

이나 적성, 진로에 따라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만큼 내용도 다채로워 개설한 학기 만에 높은 호응도를 얻은 상태이다. 수업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유한

e-Learning 강의는 물론, 실시간 화상 강의,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며 세미나·토론·실습·실험·조별 프로젝트 등 과감한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다. 특히 '실시간 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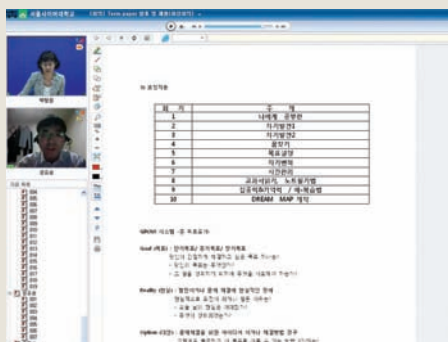


Mini Interview

박용환 휴먼서비스대학원생

현재 평화방송 아나운서로 활약 중인 박용환 씨는 "서울사이버대학원에서의 진학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남다른 애착과 신뢰를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본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동문이기 때문. 그는 "학부 시절의 경험이 대학원을 선택하는 데에 결정적 잣대가 되었다"며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이은주 교수의 <사회서비스정책연구> 과목이 기억에 남는다고, "사회서비스의 국가별 유형 파악 및 시대적 변화의 요인, 다양한 사례 연구 등 그 내용이 다소 어렵기는 했지만, 사회복지의 의의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된 좋은 계기였다"며 특별한 열의를 내비쳤다.





사회서비스전공 화상수업

수업'은 교수와의 관계뿐 아니라, 학생들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했다는 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명실 공히 온라인 대학원 수업의 새 장을 연 것이다.

한편 실천적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서비스 전공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구분이 된다. 사회복지 및 서비스 연구·사회복지 실천 및 응용·사회서비스기관 설립 및 운영이 그것이다. 그야말로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이는 각각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주거/교육/복지/보건/노동/케어 사회복지실천 부문, 사회서비스조직 CEO 및 운영 컨설턴트 진출로 이어진다.

상담심리대학원

심리적 문제해결의 발원을 책임지다

모든 경우의 수를 능숙하게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창의적 상담 인재를 추구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은 최상의 교육 인프라를 자랑한다. 풍부한 교육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갖춘 교수진의 규모가 국내 최고이다.

학생 관리 체계 역시 남다르다. 실효성 높은 자격증(상담심리/임상심리/청소년상담 관련)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입학 초기부터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맞춤형 밀착지도'를 실시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실시간 화상 세미나·오프라인 수업 등으로 생생한 상담사례와 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와 7곳의 지역캠퍼스, 전국의 유력한 상담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이다. 특성화된 두 가지 트랙, 즉 세대 간 상담과 위기관리 상담을 통해 지극히 독보적인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



상담심리대학원은 '맞춤형 밀착지도'를 실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상담 인재를 배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대학원은 세계 우수 대학과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교류를 시행, 학생들이 공인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외국 초빙교수의 특별 강좌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없는 수련의 장이 되고 있다.

참고로 교육과정은 전공 선수·전공 필수·전공 선택으로 나누어지며, 전공 선택 과정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기초단계(확장)·탐구단계(응용)·심화단계로 개설되어 있다.



Mini Interview

김기환 상담심리대학원생

“지인들 사이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자가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시스템도 훌륭하다고들 하고, 학부에 대한 소문이 이 정도인데, 석사 과정은 오죽 잘 만들어 놓았겠는가 싶어 주저 없이 지원을 결심했죠.” 전공의 깊이를 한층 더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김기환 씨는 실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가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발로 뛰다 보니 학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어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 입학했지만 시작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을 처음 접했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했을 터. 그는 학기 초반을 떠올리며 씩스레게 웃었다. “실시간 화상수업을 듣는데, 뭐가 뭔지 몰라 한참 헤맸지 뭐예요, 두어 번 만에 완벽 습득하긴 했지만, 양질의 수업을 학습자가 원하는 대로 두루 섭렵할 수 있다는 점이 이곳 사이버대학원의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의 이해>와 <고급 상담 이론> 과목은 너무 흥미로워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도 했었다. 김기환 씨는 멘토 역할을 기꺼이 자처하며 학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이끌어주는 교수진에 대해서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서울사이버대학원은, ‘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건강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앞으로 박사과정도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1대 총학생회 **최삼식** 총학생회장

서사인 위해 발로 뛰는 열혈 회장!
공부할 때는 열심히,
놀 때는 신명나게

‘화합하고 상생하는 총학, 사랑하고 배려하는 총학, 소통하고 교류하는 총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제11대 총학생회가 발족 반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2월 취임식 이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학기를 보낸 최삼식 총학생회장은 벌써 2학기 학생회를 꾸려나갈 준비로 숨 돌릴 틈도 없다. 학우들을 위해 방학도 반납한 열혈 총학생회장을 만나 서사대의 지난 학기를 돌아보았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 알림이 SCU i News 기자단

카파이즈(Capaism) 실천하고
서사대 널리 알리는 5인의 기자단!

지난해 10월 예비기자로 선발된 제1기 SCU i News 기자단의 활동이 뜨겁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한 다섯 명의 학생들은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지난 4월 임명식을 시작으로 서사대의 소식들을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발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학교 소식 외에 기자별로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적인 기획기사 게재도 병행하고 있다.

글 | 편집부



학 교는 방학을 맞았지만 최삼식 총학생회장의 스케줄에는 휴일이 없다. 일, 학업, 가정생활에 학생회까지 돌보려면 주말은 커녕 모처럼의 여름방학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임기 시작하고 2월부터 연합 OT에 18개 지역 신·편입생 환영회, 그리고 14개 학과 MT까지... 학우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매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요. 지나고 보니, 각종 행사 속에 파묻혀 가족들 얼굴 본 게 언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죠.”라며 소탈하게 웃는 최 회장은 인터뷰 당일에도 전날 총학생회 일정으로 새벽에야 귀가했다고 한다.

2008년 복지시설경영학과 입학 이래 학과 학생회 활동을 시작으로 꾸준히 학교 살림을 도맡아온 그는, ‘서사대의 장기적인 발전과 브랜드 가치 상승, 학우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제11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결심했다. 취임 전에는 사이버대 특성상 직장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우들의 특성에 맞춰 ‘공부할 때는 열심히, 축제 때는 신나게 즐기는 총학’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예산 문제였다. 처음 총학 살림을 인수받고 보니 통장에 잔고가 없었던 것. 게다가 얹힌 데 덮친 격으로 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가 종합포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생긴 문제들로 학생회에는 학우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여러모로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최 회장을 괴롭혔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나갔다. 부족한 예산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학생회 살림을 꾸렸고, 홈페이지 문제도 즉각 학교에 연락해 조치를 취했다.

“계획했던 사업은 모두 이뤘다고 생각합니다만 평가는 학우들의 몫이겠지요.” 지난 학기 총학생회장으로서의 행보에 대해 겸손한 평가를 내린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서사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권익을 찾아주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다가온 2학기에는 10월 예정인 ‘서사대 한마음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는 열혈 총학생회장의 노력하는 모습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만 약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너무 멀리서 찍었기 때문이다.” 중군사진 작가이자 기자정신을 뜻하는 ‘카파리즘(Capaism)’의 유래로 유명한 로버트 카파 (Robert Capa, 1913~1954)의 말이다. 이는 피사체와의 실질적 거리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거리’를 뜻한다. 얼마나 피사체에 ‘진심으로 다가가 그 상황을 느끼고, 전달하고자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오프라인 활동에서 도태되는 서사인들을 위해 SCU i News 기자단은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부지런히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수습 기간 동안 전문 지도교수님을 통해 기자의 기본 마인드를 비롯해 기사 쓰는 법, 파워 블로거 되는 법 등 기본적인 수업을 받은 기자단은 이제 제법 프로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타지역 소모임 등에 참가해 지역별 특색 있는 모임의 취지와 진행을 보도하고, 화상으로만 접했던 교수님들의 현장 모습을 담기 위해 신·편입생 입시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지난 학기 기자들의 활동은 뜨거웠다. 선발되기 전까지는 수업 듣기에도 급급했지만, 막상 기자가 된 후부터는 학우들에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야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하다. 대내외적으로 학우들에게는 학교 소식을, 일반인들에게는 서사대를 널리 알리고 있는 알림이 5인방의 기사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블로그(<http://iscu.tistory.com>)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SCU i News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써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사를 완성했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네요. 앞으로 좀 더 힘 있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선 기자(컴퓨터정보통신학과 4학년)



“학생들이 공감하고 우리 서사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멋진 기사를 쓰겠습니다. 졸업반이라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짧지만,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자세로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혜원 기자(상담심리학과 4학년)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우님들도 모임 뒷이야기, 배경 등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이 기자(상담심리학과 2학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서사대의 위대함을 전해주고, 같은 동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마주치면 저희 SCU i News 기자들 아는 척 많이 해주세요.”

김유미 기자(경영학과 4학년)



“사람다운, 사람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학우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열정적인 후배들이 기자단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며, 서사대의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SCU i News 기자단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마현모 기자(사회복지학과 2학년)



MUSICAL

햄릿(HAMLET)

사랑, 그리고 복수...비극의 결정체

2007년 시즌1부터 2008년 햄릿 월드버전까지 새로운 시즌으로 선보인 뮤지컬 '햄릿'이 3년 만에 다시 공연된다. 체코가 원작인 뮤지컬 '햄릿'은 기존 '햄릿' 공연들과 달리 록과 재즈, 라틴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역동적인 무대로 셰익스피어의 원전을 아름다운 선율 속에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을 얻었다. 체코에서는 최고의 례런 히트 작품으로 1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1999년 체코에서 초연된 이후 2003년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했고, 2007년 국내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에서 햄릿 역은 배우 김수용과 박은태가 맡는다. 초연 당시 햄릿 역을 맡았던 배우 김수용은 매 시즌 팬들과 관객들에게 화자되며 인기를 모았고, 박은태는 2008년 월드버전에서 레어티스 역을 맡기도 했다.



- 기간 : 2011. 10. 20 ~ 2011. 12. 17
- 장소 :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

CONCERT

서울국제공연예술제

34일간 열리는 공연예술의 향연

세계 무대예술의 최신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제11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9월 28일부터 10월 31일 대학로 공연장 곳곳에서 열린다. 2001년 시작해 해외 우수작과 국내 인기작을 소개한 공연 축제로, 올해에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과 아르메니아, 호주, 콜롬비아 등 8개국 공연 단체가 참가해 연극과 무용, 복합극 등 37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축제는 '새로운 틀,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익숙한 형식에서 벗어난 신선한 공연을,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미래를 무대에 구현해내고 눈을 매료시킬 정교한 그라픽을 통해 미지의 세계로 초대되어 잊고 있던 어린 시절 꿈을 떠올리게 되고 공연장을 걸으며 관람할 수 있다.



- 기간 : 2011. 9. 28 ~ 2011. 10. 31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서울역

Book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 추천 샘에게 보내는 편지

심리학자 다니엘 고틀립이 할아버지로서 손자에게 들려주는 사랑과 상실과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성찰, 『샘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저자가, 자폐 진단을 받은 손자 '샘'에게 전하고 싶은 인생의 지혜를 32통의 편지로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인상이 깊었던 것은 유일한 손자가 자폐에 걸린 것을 알고서도 좌절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할아버지의 자세였다. 우리가 흔히 '장애'하면 측은지심으로 보기 쉬운데 주인공은 장애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진심을 전하고 있는 모습에서 감동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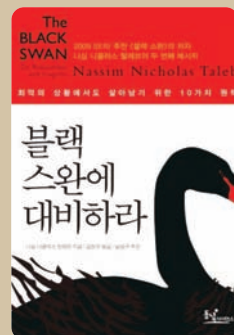
다니엘 고틀립 지음, 이문재 · 김명희 옮김, 문학동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성태 교수 추천 블랙 스완에 대비하라

2008년 세계경제를 뒤흔든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두번째 메시지가 담긴 『블랙 스완에 대비하라』. 이 책은 저자가 <블랙 스완> 출간 이후에 있었던 학계와 경제계의 반응,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있는 월스트리트와 미국 정부, 그리고 변화된 상황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전작 <블랙 스완>이 사건과 영향을 보여주었다면, 이 책에서는 블랙 스완이 존재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모델보다 경험을 믿어라', '부정적 조언에 주목하라',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라', '이기기보다 실수를 피하라' 등이 그것이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지음, 김현구 엮음, 동녘사이언스



PUZZLE

아래의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본 퀴즈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홈-대학생활-이벤트)로 들어가서 보내주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을 추첨하여 상품 권을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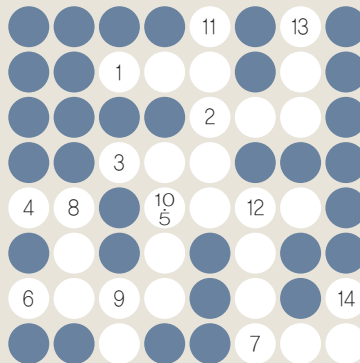
가로열쇠

- 여의도에 있는 마천루.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이기도 함
- 주로 TV에서 주말 또는 일일로 방영되는 이야기 중심의 극 형태
- 술이나 잠에 몹시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못 가누는 모양. ○○○만드레
- 바다에서 살다가 고향인 강 상류에 올라와 알을 낳고 죽는 대표적 회귀성 어종
- 가을 들녘에 흔히 피는 가을을 상징하는 꽃이름
- 인터넷 상에서 작고 아담한 창 안에 사진첩과 일기 등으로 쉽게 꾸밀 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
- 컴퓨터 모니터의 화상이 텔레비전의 화상처럼 움직이는 영상

세로열쇠

- 출산한 여성을 자식의 관점에서 부르는 호칭.
- 아구에서 한 번의 타격으로 모든 루를 통과하여 홈으로 돌아와 득점을 올리는 것을 말함.
- 국내 종합주가지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
- 결혼할 때 신부가 입는 의상
- 기부금이나 성금 따위를 모으는 운동
- 중년 여성을 낮추어 이르는 말.
- 여러 가지 상 가운데 가장 큰 상

2011 가을호 문제



2011 여름호 정답



■ 2011 여름호 정답 & 한마디

신현아 : 평소 대하기 힘든 학교소식을 간편하게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학교 행사나 동아리, 봉사활동도 함께 게재가 되어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 이벤트가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선배님들의 성공담도 실어주시면 좀 더 알찬 SCU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박주식 : 해외탐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분기1회보다는 더 빨리 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경 :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 재밌었던 점, 동아리탐방, 학생활동 등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정일 :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덜 되었는지, 책자가 눈에 잘 안 띄네요. 학교 홈페이지나 학생포털시스템에 링크되어있으면 더 많은 학우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소재로 학우들의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 지금까지 여러 학우들의 이야기를 계속,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숨은그림찾기나 재미있는 이야기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윤솔지 : 조금 더 쉬운 퀴즈와 실용적인 이야기들, 학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신 : SCU e야기를 통해 학교 소식 이모저모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학사제도 해설 시리즈와 Book 코너가 유용했습니다. 누구나 관심 있을 법한 건강 상식이나 음식에 관한 정보를 다루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 추천 화폐전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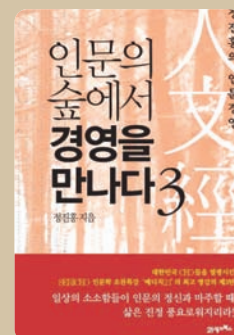
중국 출신의 국제금융학자 쑹홍빙의 『화폐전쟁』 제3권 〈금융 하이 프런티어〉. 1권은 미국의 화폐 역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했고, 2권은 유럽 금융의 변화 과정을 회고했다. 그리고 3권에서는 금융의 각도에서 중국 현대사를 하나씩 풀어헤친다. 아편전쟁의 원인, 장제스의 화폐전쟁, 메이저 유신과 양무운동, 황권과 금권의 싸움, 다이쇼 정변의 몰락, 인민폐의 과거와 미래 등 아편전쟁 이후 170년에 걸친 아시아 근현대사를 금융 하이 프런티어란 관점에서 정밀하게 묘사했다. 또한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은(銀)에 대한 관심이다.

쑹홍빙 지음, 홍순도 옮김, 랜덤하우스

경영학과 고윤승 교수 추천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어렵게 느껴지는 인문학을 소소한 일상 속으로 끌어내린 책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시리즈(1, 2, 3권).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온 저자 정진홍이 1권에서 인문학적 '통찰'의 힘을, 2권에서 인문을 향한 '열정과 소통'의 힘을 강조했고 이번 3권에서 '일상과 인문학'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풀어내며 삶이 곧 인문학이고 의지의 그루터기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 깊숙이 내려앉은 인문학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한다면 물질적 부를 넘어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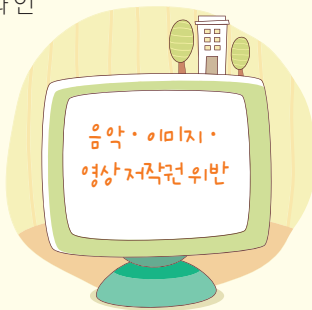
정진홍, 21세기북스



Netiquette

알쏭달쏭 저작권 위반 아름답고 멋진 인터넷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조심! 이런 경우는 저작권 위반. 인터넷을 하다보면 남들도 다 하는데 저작권 위반일까? 설마 이것 가지고 처벌 받지는 않겠지? 잘 모르거나 무심코 지나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음악, 영상, 디자인 등 각종 문화 콘텐츠에 '저작권'이라는 보호막을 입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그 위험성으로부터 저작자들을 보호해



야 했기 때문이다. 알쏭달쏭한 저작권- 생활 속에서 저지르기 쉬운 일이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을 알아본다.

음악·이미지·영상 저작권 위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다른 네티즌이 직접 만든 음악 또는 영상물,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 영화 파일 또는 음반 구입 후 이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찍은 이미지에 무단으로 워터마크를 다는 경우
- 임베디드 링크를 사용하여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을 올린 경우
-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을 무단 촬영하여 올린 경우
- 저작권을 침해하는 악보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 저작권 침해 음악, 영상이 올려져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경우

I Love SCU

인생, 그 멋진 여정을 위한 나만의 특별한 선택

조은희(가족상담학과 2011년 8월 졸업)

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지원 전,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거쳐 관리자로 근무하며, 주로 아동재활과 관련된 교육과 학부모 상담을 맡고 있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심리정서 발달에 지연이 있거나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부모님과 가족과 연관된 문제인 경우가 많았는데, 학부모를 상담하면서 나에게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일하면서 맞벌이가 많은 요즘에는 친정과 시댁의 아동 교육 및 양육의 문제도 아동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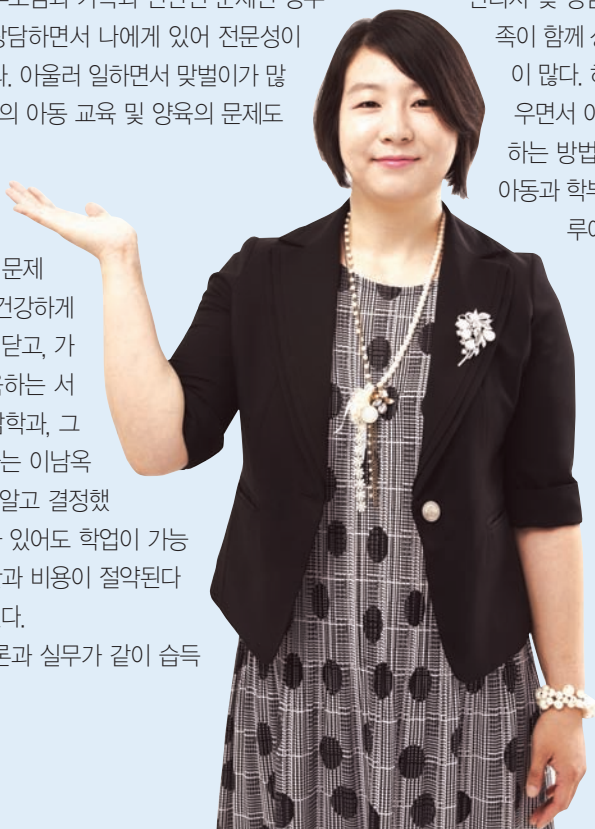
결국 가족 및 가정 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 상담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정상담학과, 그리고 그곳에 평소 존경하는 이남옥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결정했다. 또한 결혼하여 아이가 있어도 학업이 가능하고, 일반 대학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상담이라는 학문은 이론과 실무가 같이 습득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학과는 이것을 동시에 배울 수가 있다. 가족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취업과 함께 가족상담사로서의 실력도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서울무학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심리정서 영역의 전담사례 관리자 및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상담되지 않으면 힘든 아동을 돕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가족상담학을 배우면서 아동 개인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상담하는 방법과 가족이 어떻게 역동을 가지는지, 현장에서 아동과 학부모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시각 또한 길러져, 하루에 몇 번이고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담과 심리학 그리고 심리치료의 분야는 많은 영역이 있다. 가족은 개인의 문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보면 많은 경우 개인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가족을 상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중요한 가족 상담을 가장 깊이 있게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곳! 나는 이러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상담학과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이번 호에서는 재학생 양혜옥 학우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졸업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혜옥 부처장님 안녕하세요. 졸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상규 교무부처장(이하 교무부처장) 네. 학우님,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양혜옥 졸업요건이 무엇인가요?

교무부처장 졸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첫째, 8학기(편입생은 편입학 인정학기 포함) 이상을 등록할 것
둘째, 총 취득학점 140 학점 이상을 취득할 것
셋째, 이수구분별로 기준학점(입학연도에 따라 다름) 이상 취득할 것

양혜옥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교무부처장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이며 전공 및 교양의 최소 이수학점은 입학연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학점 기준(단위 : 학점)

입학연도	전공학점	교양과목		일반선택	총 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2008년 이후	42 이상	4(컴퓨터이해와활용, 사이버학습의이해)	31 이상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140 이상
2007년					
2006년 이전	35 이상 (사회복지학과는 42 이상)	3(컴퓨터이해와활용)	32 이상		

양혜옥 조기졸업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무부처장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하고 학칙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졸업(1학기나 2학기를 단축하여 일찍 졸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총 이수학점이 140학점 이상, 졸업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이 3.75 이상이어야 하며, 졸업심사 시에도 총 평점평균이 3.75 이상이어야 졸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2회 이상 휴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사과정은 수업연한이 4년으로 총 8학기 이상의 학업을 이수함으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적우수자로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6학기나 7학기 만에 140 학점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졸업이 불가하며 잔여 학기에 1과목 이상 수강·등록하여 정시졸업을 하여야 합니다.



양혜옥 졸업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졸업이 되는 것인가요?

교무부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하는 학기 초의 소정기간에 졸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 학기 졸업심사를 통과한 학생이 졸업을 연기하거나 복수전공을 이수하던 학생이 이를 포기하고 졸업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을 예방하고 정확한 졸업예정인원 산정과 원활한 수강지도를 위해 누적학점이 116학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의사를 파악하고자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졸업 관련 신청을 받습니다.

▶졸업 관련 신청은 ①정시졸업신청, ②졸업연기신청, ③조기졸업신청의 3가지로 구분되며 대상

이 되는 학생은 본인의 학업계획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졸업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양혜옥 그럼 마지막 학기에는 누구든지 졸업과 관련한 신청을 해야 하는군요

교무부처장 네 그렇습니다.

양혜옥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 연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교무부처장 졸업예정자 중 자격증 취득이나 복수전공을 위해서는 졸업연기가 가능합니다. 116학점 이상 이수자라도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졸업연기신청을 해야 하며, 졸업연기자는 매 학기 반드시 1과목 이상 학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유구분	세부 내용
자격증 취득	졸업기준학점인 총 140학점 이상 이수예정이지만 자격증 취득 목표가 남아있기에 한 학기만으로는 학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	졸업기준학점인 총 140학점 이상 이수예정이지만 복수전공 이수학점이 남아있기에 한학기만으로는 학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학점 조절	직전학기까지 총 116학점 이상 이수하였지만, 졸업기준학점인 총 140학점 이하로 학업계획을 세운 학생
세부요건 미비	직전학기까지 총 116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졸업기준학점인 총 140학점 이상 이수예정이지만 세부이수요건이 부족한 학생

양혜옥 나의 졸업이수요건과 현재 진행 중인 학점, 편입학 인정학점 등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교무부처장 지난 호 수강신청 안내에서 그림과 함께 소개했었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 [졸업 학점이수 현황 표] (위치 : 학생포털> 마이페이지> 개인정보> '졸업' 탭 클릭)에서 졸업이수요건/편입학학점인정/이수학점/이수총계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혜옥 부처장님 감사합니다.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풀어서 설명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부처장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학우님,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상담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명품대학 SCU에서의 성취가 곧 삶의 경쟁력

서 울사이버대학교는 8월 20일 오후 2시 본교 4층 차이 코프스키홀에서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최고령 졸업생인 군경상담학과 최영일(67) 씨와 최연소 졸업생인 복지시설경영학과 오현아(23) 씨를 포함, 475명의 재학생이 학위를 받음에 따라 지금까지 총 1만 1,99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재웅 총장은 이날 식사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배우고 느꼈던 수많은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을 몰라보게 변화시켰을 정도로 이곳에서의 성취가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이제 힘찬 발걸음으로 저 넓은 세상에 나아가 명품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생이라는 자긍심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당당하고 멋지게 활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임정희 씨와 상담심리학과 박 초 씨가 신일스승상위원회 위원장과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고, 김선영(금융보험학과), 김영미(사회복지학과), 박미영(상담심리학과), 송길섭(법무행정학과), 황승환(컴퓨터정보통신학과) 씨가 총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인공 눈(雪)을 이용한 깜짝 이벤트와 본관 정문 앞에 천사의 날개를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해 행사에 참석한 졸업생과 가족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북구 미아동 본교에서 열린 서울사이버대학교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들이 인공 눈을 이용한 깜짝 이벤트에 환호하고 있다.

하반기 입시설명회 개최

2011학년도 2차 하반기 입시설명회가 6월 28일, 7월 7일과 9일 등 총 3차에 걸쳐 본교 5층 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학습 방법 및 학교소개, 입학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서울사이버대교 시설과 콘텐츠 제작 현장 견학 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과별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지원자들을 위한 학업상담도 병행하였다.



사이버대학 중 스마트 러닝 콘텐츠 최다 지원

교육과학기술부가 6월말 사이버대학교의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학 중 최다 스마트 러닝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한 발 앞선 스마트 러닝 서비스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은 지난해 단순 모바일 러닝 서비스가 아닌 스마트 러닝 서비스로의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SCU 2.0’ 스마트 러닝을 개발해 대학 이러닝 시스템과의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강의 수강 외 다양한 학사정보를 웹과 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지원하였다. 또한 통신사 상관없이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아이패드,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동일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학습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전체 강의 콘텐츠 중 50% 인 약 160과목을 스마트 기기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사이버대학 학생의 3,000명 정도가 이미 스마트 러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SCU 사랑의 봉사단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펼쳐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 등 총 50여명으로 구성된 'SCU 사랑의 봉사단'은 8월 12~13일 이틀에 걸쳐 충남 천안 목천읍 해비타트 희망의 마을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SCU 사랑의 봉사단'은 건축자재 운반, 지붕틀 제작, 외벽 비계 설치 작업 등 집이 지어지는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전공 재학생들의 참여율이 종전보다 높아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였다. 매 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사랑 나눔 여름 보내기' 활동을 진행해온 'SCU 사랑의 봉사단'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해왔으며, 국내뿐 아니라 필리핀 등 해외에서도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이외에도 병원 봉사활동, 지역 봉사, 차상위 계층을 위한 봉사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이웃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서사인과 함께 하는 '2011 남산 걷기대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6월 11일 교직원과 재학생, 동문 졸업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에 참가하였다.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는 서울시 주최로 열린 행사로, 지난 4월 9일 '새봄맞이 걷기대회', 5월 14일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1

일은 '외국인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라는 부제로 2011년도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의 마지막 행사를 개최하였다.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에 참가한 본교 팀은 남산 분수대 광장에서 출발하여 팔각 주차장을 지나 국립극장, 시청 남산별관을 돌아 다시 분수대 광장으로 돌아오는 총 길이 7.5km 구간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행진을 하였다. 총학생회 최상식 회장은 "이번 남산 걷기대회를 통하여 교수님과 동문 선배님들과의 화합과 친교의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직장생활과 학업 등 바쁜 와중에도 행사에 참가해 주신 재학생 및 함께 오신 가족 분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오시진 못했지만 늘 성원해주신 학우님들께 매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였다.

2011학년도 1학기 우수교원 시상식



2011학년도 1학기 우수교원 시상식이 8월 27일 본교 5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외래교원을 대상으로 우수한 강사의 수업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수업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 하고자 실시한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교양학부 안소라 교수, 우수상은 노인복지학과 강진경 교수, 교양학부 차승희 교수, 장려상은 보건행정학과 김귀현 교수, 복지시설경영학과 이봉원 교수, 교양학부 이진복 교수가 각각 수상하였다.

SCU 멘토링 평가회 및 결연식

2011학년도 SCU 멘토링 1학기 평가회 및 2학기 결연식이 8월 20일 본교에서 개최되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Sharing(나누고), Challenging(도전하



며), Unified(하나되는)"이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2008학년도를 첫 시작으로 해서 벌써 4년째를 맞고 있는 행사로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선후배간 돈독한 관계를 통해 유대감 증진 및 학습효과를 효과적으로 배가시키는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특화된 제도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교양학부 박재은 교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박재은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화여대 작곡과를 졸업한 박 신임 원장은 미국 미시간대에서 작곡학 석사, 뉴욕주립대에서 작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집행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관, 예술의전당 음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자기주도 학습자로 키우는 7가지 비밀’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7월 15일 ‘자기주도 학습자로 키우는 7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자기주도학습의 창시자인 정철희 교수(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주임교수)의 특강을 실시했다. 8월부터 자기주도 학습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은 강북구청과 성

북교육지원청과 함께 강북구 주민들에게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무료특강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물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역 ‘만남의 날’ 2학기 행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역캠퍼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캠퍼스, 재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하여 2010년부터 매달 지역 만남의 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지역 ‘만남의 날’에는 본교 전임교원 1인이 지역캠퍼스에서 재학생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상담이 이루어진다. 2학기 첫 행사는 9월 17일(토) 및 24일(토) 15시부터 각 지역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www.iscu.ac.kr 참조)

■ 2학기 일정

9 월	10 월	11 월
17일(토), 24일 (토) 15시	29일 (토) 15시	26일 (토) 15시

‘여경의 전설’
박미옥 동문
(법무행정학과)

최초 여성강력계장으로 ‘사건 1번지’ 투입

‘여경(女警)의 전설’로 불리우는, 법무 행정학과 졸업생 박미옥 동문이 서울 강남 경찰서 최초의 여성 강력계장이 됐다. 강남경찰서



는 2008년 고시원 방화사건을 비롯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들이 일어나 ‘사건 1번지’로 불리는 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현 오 경찰청장이 경찰 개혁의 시발점으로 강남권 경찰서를 지목한 이후 실시된 첫 인사 조치”라며 “박 경감에게 강남 치안 업무의 선봉장 역할을 맡긴 데는 여성 특유의 섬세한 카리스마로 개혁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 동문 발탁은 마포서 강력계장으로 만삭 의사 부인 살해 사건, 한강변 여중생 살인 사건을 담당하며 보여준 현장 수사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박 동문은 “내가 강남서에 온 이유는 기존의 형사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강남에 살면 확실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어진 임무라고 본다.”고 앞으로 포부에 대해 밝혔다.

교수학습 모형 및 WAVE 활용 워크숍



서울사이버대학교는 6월 15일 제1차 워크숍에 이어 ‘WAVE에서의 학습도구 활용 사례 발표’를 주제로 한 교수워크숍을 6월 27일 5층 제3스튜디오에서 2학기 신규강의 개발 전임교수 및 신임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졸업생 무료청강 프로그램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올 2학기부터 졸업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SCU 졸업생 무료청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강좌에서 졸업생들은 매 학기(정규학기) 2과목에 한해 무료 청강 가능하다. 단, 출석, 시험, 리포트, 퀴즈, 게시판 등의 상호작용은 없다.

2011학년도 베스트 동아리 선정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11학년도 베스트 동아리(CLUB)선발에서 최우수 동아리로 ▲SCU 산악회 ▲서사대 강원영동사랑 봉사단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행복한 동행, 그리고 우수 동아리로 ▲기동대가 각각 선정되었다. 베스트 동아리선발은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문탐구와 학습정보를 지향하고 있는 많은 동아리 관계자 및 회원들에게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권오중 동문, ‘이달의 나눔인’ 선정

본교를 졸업한 이후 휴먼서비스 대학원에 재학 중인 탤런트 권오중 동문이 가수 하춘화 씨와 인순이 씨 등과 함께 재능기부를 실천한 ‘이달의 나눔인’으로 선정, 8월 2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달의 나눔인은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재능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실천한 이들을 추천받아 선정한다.



SCU동정



●●● 김영민 교수, 『국제운송론』 출간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도로·철도·해상·항공운수 등 화물운송의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국제운송론』(도서출판 두남, 공저)을 8월 발간하였다.



●●● 김현아 교수, 트라우마 관련 논문게재 및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7월 31일 발간된 청소년학연구회지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고, 8월 10일 『트라우마 회복탄력성과 상담실제』(시그마프레스)를 발간하였다.

●●● 김현진 교수, 심리학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의 논문이 저널 Computers in Human Behavior (SSCI) 27호에 'Do millennial undergraduates' views of writing differ when surveyed online versus on paper?'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 박종선 교수, 『이러닝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스킬』 외 1권 출간



교양학부 박종선 교수(교수학습지원센터장)는 『이러닝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스킬』과 『이러닝 품질인증 길라잡이』(KelIA) 등 저서 2종을 출간하였다.

●●● 서영수 교수, 투자심리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는 9월 30일 발간한 아시아유럽미래학회 학회지에 <한국 투자자의 투자심리 학습을 위한 e-Learning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이우경 교수, 『마음을 챙기면 엄마 노릇이 편해진다』(출간)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8월 5일 『마음을 챙기면 엄마 노릇이 편해진다-스트레스 덜 받으며 사춘기 아이와 함께 사는 법』(팜파스)을 출간하였다.



●●● 이은주 교수, 홍콩교육박람회 참가

사회복지학과 이은주 교수는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린 홍콩교육박람회(Education EXPO)에 참가하여 우리대학에서 개발한 e-Learning 시스템인 SCU Learning WAVE를 발표하고, 본교의 강의를 테블릿 PC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시연하며 소개했다.



●●● 이자영 교수, 심리치료자에 대한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는 6월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간한 Professional Psychology(SSCI)에 <심리치료자 소진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이진경 교수, 대규모 국제회의 논문 발표

부동산학과 이진경 교수는 'The 2011 AsRES & AREUEA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의 조직위원으로서 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논문 발표를 하였다.



●●● 이희연 교수, 중년기여성에 대한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이희연 교수는 7월 31일 한국콘텐츠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지(제 11권 제 7호)에 <중년기여성의 삶의 기대,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하였다.



●●● 전호진 교수, 금융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전호진 교수는 6월 30일 한국동북아경제학회에서 발간한 동북아경제연구 학회지에 <중국과 홍콩 ADR 가격결정요인과 정보전이 효과>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차명희 교수, 게임 관련 논문 게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6월 30일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지에 <fsm 활용한 npc 캐릭터 동작 향상을 위한 연구>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된 1974년 입사 이래 37년간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해온 김진해 역장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산증인이다.

산학협력 통한 힘찬 도약, 서사대와 서울메트로의 스마트한 만남!

교육과학기술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에 빛나는 우수 인재의 산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희망레일 '서울메트로'와 손을 잡았다. 지난 2008년 1월 7일부터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교육, 정보,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양 기관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서사대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한 것.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에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서울사이버대학역'으로 병행 표기되면서 사이버대학 최초의 지하철 역사명으로 등재되는 겹경사를 맞기도 했다.

글 | 편집부

Win-Win! 하는 서사대와 서울메트로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대중교통 가운데에서도 서울메트로는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2,3,4호선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가장 충실한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 몇 년 전부터는 삭막하기만 했던 과거 지하철에 '문화'가 덧입혀지면서 웃음과 여유가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서비스가 이뤄지는 등 IT가 결합된 생활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래형 공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또한 '지식경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메트로는, 교육비 지원제도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발해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전체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 사내 인재양성 및 육성사업과 공

동연구과제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와 문화일보 AM7이 공동주최하는 '지하철·전철 에피소드공모전'을 후원하는 등 문화 사업에도 주력, 산학협력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에피소드공모전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학상'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총 1,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규모 있는 문학공모다.

Fun! Fun! 한 미아역과 서울사이버대학역

서사대와 서울메트로의 동행은 지하철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2009년 '미아역'에 '서울사이버대학역'을 병행 표기하게 된 것이다. 4호선 미아역은 마치 작은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마저 일으킬 정도로 파스하고 아늑하다. 지하 공간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다. 미아역은 다른 대학역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하루 승차 인원 3만 명 정도의 크지 않은 역이지만 고객만족



지난 2008년부터 서울메트로
는 서울사이버대학과 산학의 인
연을 맺어 오고 있다. 양 기관의
산학협력은 임직원의 교육과 현
장실습 등 업무제휴를 통해 상
호 공존하는 Win-Win 전략으
로 평가받고 있다.



도 1위에 빛나는 명품역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미아역이 처음부터 문화예술 행사가 활
발했던 것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아역에
는 서사대의 위치를 알리는 변변한 표지 하나 없었
다. 여느 역과 다를없이 그저 '지하철을 타고 내리
는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미아역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 바로 김진해 역장이다. 그는 미아역 방
문객을 비롯한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
사안내표시를 새롭게 바꾸기로 한다. 그리고 그 과
정에서 지하철 승객들이 '미아역'과 '미아삼거리
역'을 혼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생각한 것은
바로 실천해야 직성이 풀리는 김 역장은 당장 서사
대에 역명 병행표기 신청협조를 구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역명 병행 신청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학교의 다양한 시설과 규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이버대학인데
도 크고 깨끗한 오프라인 캠퍼스에, 이 정도면 미아
역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은 '서울사이버대
학역' 병행표기로 '미아삼거리역'과의 혼동을 방
지하고, 학교 측에서는 지명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
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김진해 역장의 이런 노력을 치하하는 의미로 2010
년 공로상을 시상했다.



Mini Interview

서울메트로의 산 증인 김진해 역장 서울사이버대학역 지킴이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찾는 방문객
이라면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김진해 미
아역장이다. 지난 2009년 '미아역'이 '서울사이버대
학역'으로 병행 표기되기까지 김 역장은 누구보다 노
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된 1974년 입사 이래 37년간 서울메트로에서 근
무해온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산증인이다. 동대문역
근무를 시작으로 2~3년마다 순환근무를 해온 그에게
미아역은 20번째 근무지이자, 마지막 정년을 맞고 싶
은 역이기도 하다. 우연인지 전임 역장들도 모두 미아
역에서 정년을 맞았던다.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입된
이래 운수분야에서 최초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서사대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다르다. 김 역장 본인이 서울메트로에 근무하
는 동안 학사모와 석사모를 쓴 만학도인 만큼 늦게 공
부를 시작한 '만학 후배들'이 많은 서사대 학우들에
대한 애착이 큰 것. 서사대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그
룹별 활동 등을 진행할 때 전시공간이 필요하다면 언
제든 역사를 개방하겠다는 김 역장은 서사대와 미아역
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이버대 최초로 역명 병행표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도 서사대가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는 김진해 역장은
우리 학우들의 꿈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 **발 행 처** 서울사이버대학교
(142-700)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3-15
- **발 행 인** 이재웅
- **편집주간** 이항아 교수
- **편집위원** 고윤순, 김영민, 김현아,
박병석, 심선경,
임세희 교수
- **발 행 일** 2011년 9월 30일
-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16
(주)디플랜네트웍스
(02)518-3430

제4회 2011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디지털 상상



<http://multi.iscu.ac.kr/sangsang>

응모주제 '디지털상상'

- 응모분야
- 멀티미디어 · 콘텐츠 부문
(UCC동영상, 동영상타이틀, 플래시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 시각디자인 부문
(컴퓨터그래픽, 출판편집디자인, 포스터 및 광고디자인, 캐릭터 및 일러스트, 패키지 및 설치물(옥외광고 · POP광고))
 - 사진 부문(디지털사진, 순수사진)

응모자격 및 작품수

- 고교재학생 · 전문학교, 전문대학 재학생 · 4년제 대학생 · 일반인
- ※ 작품응모수는 공동작품 포함 2개 작품으로 한정하며, 공동작품의 경우 참여자는 3인으로 제한함.

추진일정

구 분	세부일정	비 고
출품기간	2011. 9. 1(목) ~ 11.27(일)	http://multi.iscu.ac.kr/sangsang
수상작발표	2011. 12. 6(화)	http://www.iscu.ac.kr
시상식	2011. 12. 20(화)	장소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수상작전시	2011. 12. 20(화) ~ 26(월)	

작품접수 및 제출규격

-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http://multi.iscu.ac.kr>)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배너 클릭 - 공모전 홈페이지(<http://multi.iscu.ac.kr/sangsang>) 기본정보 입력 - 작품 업로드

시상내용 및 전시

- 상장 및 상품 (1천 5백만원)
※ 상품 금액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납부 할 수 있음.
- 특선 이상 수상작은 2011. 12. 20(화) ~ 26(월)까지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전시됨.

관련문의

- 제4회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홈페이지(<http://multi.iscu.ac.kr/sangsang>)
-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http://multi.iscu.ac.kr>)
Tel : 02-944-5120~23, 5129